

교통약자 버스이용 편리해진다

전주시, 과기부 공모 승·하차 지원 공공디바이스 개발... 10월 시범 추진 운행정보 실시간 확인·도착·탑승 정보 정류장과 버스에 동시 송출 가능

전주지역 장애인과 임산부, 어르신 등은 앞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교통약자 셔틀버스 탑승을 예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셔틀버스에는 대기 중인 교통약자를 발견하지 못해 버스승강장을 지나쳐가는 일이 없도록 대기자가 정보가 전달된다.

전주시는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첨단 ICT(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교통약자의 승·하차 지원 등 편리한 버스 이용을 돕는 스마트기기 개발에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

개발된 스마트 디바이스는 △버스 예약 및 버스 실시간 운행정보 파악 △정류장에 교통약자 도착 시 정류장에 설치된 디바이스에서 자동으로 교통약자를 인식 △버스 내 설치된 디바이스를 통해 교통약자 대기정보가 운전자에게 전달된다.

또한, 향후 본격 도입에 앞서 사용하기 쉬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스마트폰 등과 연동, 교통약자의 현 위치에서 목적지를 가기 위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도 확인할 수 있는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이 사업으로 현재 일반 시내버스 노선에만 구축된 전주교통정보 관련 시스템을 교통약자 셔틀버스에도 장착할 수 있는 만큼, 교통약자들의 버스 운행에 대한 정보망이 형성되고 이용자의 불편사항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디바이스는 장애특성에 맞는 서버 개발로 버스과 정류장간의 정보를 청각장애인에게는 시각화된 문자로 송출하고 시각 장애인에게는 음성으로 변환해 전달할 수 있게 설계돼 교통약자의 정보 접근이 용이해질 것을 전망한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민선식 전주 시 복지환경국장과 김인기 생활복지과장, 권소시업 업체인 ㈜리퍼터 김

명자 대표, ㈜빅스톤하우스 김병철 대표, KT전북본부 정충모 차장, 전주 시교통정보센터 교통약자지원팀 박재경 차장, 전주시에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박경노회장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약자이동권'의 버스 승·하차 지원 디바이스 개발 중간 보고회 및 공공 디바이스 시연회'를 갖기도 했다.

시는 기기 개발이 최종 완료되는 오는 10월부터 약 3개월간 버스운행에 대한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실용화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후, 시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전주 시교통정보센터 및 일반 시내버스와 연계하고, 대상자 정보를 통한 위치 확인 등 안심 귀가 기능까지 활용을 확대하는 등 향후 이용 방안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월 노인과 장애인,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시 불

편사항과 고충사항을 해결하고, 이동권 증진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마련 마련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교통약자이동권'의 버스 승·하차 지원 디바이스 개발 및 시범서비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아 디바이스 개발에 착수했다.

민선식 전주 시 복지환경국장은 "이 사업은 교통약자의 보행환경개선, 이동권 보장뿐 아니라 전주시의 교통약자이동권증진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과 목표가 충분히 반영된 사업"이라며 "그동안 교통약자들이 교통정보시스템 미구축으로 인해 겪었던 여러 가지 불편요소들로부터 벗어나 전주시내 권역 어디를 가든지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교통약자의 편리한 시내 버스 승하차를 위해 저상버스를 120대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셔틀버스 3대와 전국으로 운행되는 장애인콜택시 이지콜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올해 교통약자셔틀버스를 2대 더 늘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고창 공공하수처리장 파업사태 해결” 고창 공공하수처리장 파업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이 28일 전북 전주 완산구 전북지방경찰청 입구에서 실시된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 편견에 당당하게 맞서다’

전주시, 손경이 관계교육연구소장 초청 열린시민강좌

제181회 전주시 열린시민강좌가 28일 시청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강연에는 대중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성교육 강의로 정평이 나있는 손경이 관계교육연구소 소장을 초청해 ‘당신과 함께합니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손 소장은 올바른 성문제의 이해와 공감, 의식개선의 주제를 기업과 관공서 어린이와 성인 등에게 솔직담백하게 잘 설명하는 성교육전문가이다.

손 강사는 이날 강연에서 성교육멘토로서 아들을 키우며 직접 겪은 일화와 진솔한 대화를 바탕으로 △요즘 아들 성교육을 위한 10가지 핵심 원칙 △디지탈 성범죄 △성범죄에 대처하는 율

바른 방법 등에 대해 다양한 예시를 들어 풀어나가며 성장기 자녀를 둔 청중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손 강사는 최근 구조적 문제 개선 움직임의 긍정적인 변화로 ‘미투’ 운동의 확산을 꼽으며, “너 이상성이 부끄럽고 감춰야 하는 문제가 아니며 ‘나도 그랬다’가 아닌 ‘나도 고발한다’라는 문장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시민강좌에서는 문화공연으로 효자동 주민으로 구성된 하모니카 공연팀의 연주와 강와 후 토크 시간에는 강사와 수강생과의 토크(talk talk) 소통의 시간이 이어졌다. /송효철 기자



관광산업 발전 협약식 한국전통문화도시인 전주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 여행단체 패밀리 관광동호회와 전주시의 관광산업 발전 협약식이 28일 전주시청 부시정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양원 부시장과 패밀리동호회 김정철 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방세 고민, 전주시 납세자보호관과 상의하세요’

시, 보호관 제도 운영

전주시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전주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전주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채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사항 △납세자권리현장 준수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납부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과세에 대한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징수유예·채납처분유예의 신청에 대한 처리 등을 담당한다.

지방세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시청 홈페이지(www.jonju.go.kr) 내 분야별정보)세금에 게시된 신청서(관련자료 포함)를 작성해 전주시 교육청소년과 법무팀(시청 본관 8층)의 납세자보호관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납세자보호관은 처리방향 검토와 세무부서 의견조회, 관계인 의견청취 등 사실 확인을 거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특히, 시는 전주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법무팀에 배치함으로써 세무부서로부터 독립돼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

명하게 업무를 처리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지방세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063-281-2287)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송효철 기자

전주비빔밥축제 자원봉사자 '비비미' 내달 12일까지 모집

전주시와 전주비빔밥축제 조직위원회(위원장 선거현)는 오는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전주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전주비빔밥축제 현장에서 함께 할 자원봉사자(비비미)를 오는 9월 12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정비제공 안내팀 △음식 관련 메인행사를 진행할 음식행사팀 △공연·이벤트팀 △축제의 전반적인 운영을 함께해 나갈 운영지원팀 등 네 개 분야로, 총 100여명을 모집한다.

비비미 참가신청은 전주비빔밥축제 누리집(www.bibimbapfest.com)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bibimbapfest@naver.com)로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비빔밥축제조직위원회(063-231-8969)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부안해경 가치중심 비전전략 추진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공정하고 청렴한 해양경찰이 되려는 가치중심 비전 전략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부안해경은 단속 시 신속·정확한 업무처리와 친절한 언행을 유지,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조사 시 방문한 민원인에게 안내문이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며, 조사 전에는 향후 수사절차 및 일정 등을 안내하고 조사 완료 후에는 청문감사기능에서 면담 등을 통해 단속 및 조사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청렴한 해양경찰이 되겠다는 계획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소성모 농협상호금융 대표 순창 집중호우피해 농업인 위로

소성모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 28일 유재도 전북농협본부장 한재현 순창군지부장 이두용 구립농협조합장과 함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순창군 구립면 두름 재배농가와 벼 재배 농가를 찾아 농업인을 위로하고 피해현황을 점검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지난 26일에서 27일 사이에 전북지역에 최대 300mm 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려 농작물은 5 개 시군 96ha가, 축산은 3개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성모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비가 더 올 수 있어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 하며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태 기자

전주시보건소, 담배연기 없는 청정도시 만들기 주력

전주시보건소(소장 송준상)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연중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담배연기 없는 청정도시 만들기 주력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전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전주한옥마을 전역과 구도심 부성골목길 일대, 유기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어린이공원,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있다.

실제, 시는 공중이용시설 및 금연구역에 대한 주·야간 지도점검을 통해 지난해 금연구역 내 흡연자 463명을 적발했으며 현재까지 총 441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시는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시민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평일 보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과 전주대학교와 비전대학교 등 전주지역 대학교에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6개월 금연 성공 시에는 대학 자체 장학금 등도 지급한다.

지난해 금연클리닉에 참여했던 총 3,188명 중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대상자는 1,728명에 달하며 올해도 현재까지 1,847명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참여하여 그 결과, 지난 2013년 21.5%였던 전주시 성인 흡연율은 지난해 16.8%로 약 4.7%p 감소했다.

이에 대해 송준상 시 보건소장은 “지속적으로 금연구역을 관리하고 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고무탄 소고, 최루액 뿌려” 경찰 ‘노조 테러범 다루듯’

2009년 ‘쌍용차 사태’ 진압 과정에서 대테러 장비 사용 약 한달 반동안 유통기한 지난 최루액 2만 l 쏟아부어 대테러 무기 다목적발사기 사용, 테이저건 얼굴 향해 쏘

경찰이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대테러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진압용 경찰 장비와 장구류 외에 규정을 벗어난 테이저건과 다목적 발사기를 사용하고, 발안물질을 함유한 과도한 양의 최루액도 살포해 ‘공권력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경찰의 각종 장비 사용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쌍용차 사태’는 쌍용자동차 노조가 구조조정에 반대, 2009년 6~8월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자 이에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해 무력으로 강제 진압한 사건이다. 28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은 쌍용자동차 노조원에게 최루액 2만 l를 살포했다.

이는 원액 약 2000 l가 포함된 양 누리집(www.bibimbapfest.com)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bibimbapfest@naver.com)로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비빔밥축제조직위원회(063-231-8969)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이날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은 쌍용자동차 노조원에게 최루액 2만 l를 살포했다. 이는 원액 약 2000 l가 포함된 양 누리집(www.bibimbapfest.com)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bibimbapfest@naver.com)로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비빔밥축제조직위원회(063-231-8969)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하는 장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고무탄을 맞아 주저앉은 정도의 타격을 받고, 귀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진 노조원 등이 있었다고 했다.

진상조사위는 “테이저건과 다목적 발사기 사용에 따른 안전성을 고려하면, 경찰이 본 사건에서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한 행위는 과도한 경찰력의 행사로 적정하지 않고, 나아가 테이저건의 집속점을 노조원의 얼굴에 쏘는 행위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경찰은 공장 옥상에 있는 노조원에게 위협을 주거나 설치된 천막 등을 날려 보내기 위해 헬기를 공공 비행해 하강풍(일명 ‘바람작전’)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노조원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상조사위는 노조원, 가족대책위 및 시민단체 회원들은 경찰의 바람작전인 사람을 휘청거리게 하거나 공장 옥상의 함석판이 날아갈 정도의 강한 바람으로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고, 특히 가족대책위 천막에서 식사할 때 경찰 헬기가 저공비행으로 하강풍을 일으켜 밥에 모래가 섞이거나 쓰레기가 뒤얽혀진 상황이 벌어져 한 모뎀감을 느끼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헬기에서 최루액이 담긴 비발물질을 공장 옥상에 있는 노조원들에게 게임하듯이 던져 맞추기도 해 최루액으로 인한 피해 외에도 자신들이 게임의 대상자나 사상감으로 느끼는 모멸감을 준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러한 행위는 경찰청공공운영규칙·경찰관직무집행법을 벗어난 위법한 법 집행이었고, 또 경찰비례원칙상 적정하지 않으며,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돼 노조원의 집회·시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뉴스